





### 서가풍경

## 책을 보러 갔다 꽃을 만난 길

간송미술관 연구실장 최완수씨

이미 환갑을 넘은 간송미술관의 계단 난간은 여전히 30년대말 최고급 대리석의 흰빛을 잃지 않았다. 특이하게 생긴 조명을 눈여겨 보며 2층 밤색 문을 열면 거기부터 '서권기문자향'의 세계다. 그러나 책보다 창으로 새어드는 빛과 여태 자리를 내준 적 없는 그들과 기묘묘한 선인장과 은근히 밴 차내음이 먼저 느껴지니 의아한 일. 전쟁통에 폐허가 된 간송미술관에 최완수씨가 들어간 것은 66년 무렵. 중앙박물관에 다니던 그를 이끈 것은 비닐도 뜯지 않은 《대정신수대장경》 전권. 그 책은 지금 글을 쓰는 책상 뒤쪽 휘어진 서가 안에 꽂혀 있다.

“처음 들어왔을 때만 해도 간송이 모은 기십만권의 책이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얼마간 한적·양장본 등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보냈죠.”

책을 보러간 길에 최완수씨는 자꾸만 하얀 무궁화나 빨간 부용꽃을 보여준다. 꽃이며 선인장,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 바쳐야 하는 피곤함 등에 대해 얘기 듣는 사이사이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조선금석고(朝鮮金石攷)》 《오산집(五山集)》 등의 서명을 읽는다.

다섯수레의 책에서 한 권을 뽑으려면 역시 《논어》다. 별이 맞춘하게 들어오는 서재 옆 밝은 자리에 앉아 그는 한 쪽에 걸린 글을 가리킨다. '경경위사(經經緯史)' 경전을 날줄로, 역사를 씨줄로 삼으라는 추사(秋思)의 말. 미술사를 파고들다가 진경시대라는 큰 바다를 만났고 그 바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를 깨달았다.

책 보는 일을 제일로 치는 부모님 밑에 자라 책이라면 원없이 읽었다. 살아가며 제일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직장을 구했다.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동안, 가을 갈지 않은 가을이 지나가고 있다.

— 김연수 기자

